아크릴(0007C0) 분석 보고서

보고서 생성 일자: 2026년 2월 16일

AI 생성 고지: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펀더멘털 스카우터 1.3.2)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투자 주의 고지: 모든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제공된 데이터와 분석은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핵심 경쟁력 (국내 vs 글로벌)

국내: 국내 유일의 AX(AI Experience) 인프라 통합 플랫폼 **'조나단(Jonathan)'**과 의료 데이터 정제 플랫폼 **'나디아(Nadi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지분 8.4% 보유)의 로봇 라인업에 감성 인식 기술을 공급하며 '피지컬 AI' 시장의 두뇌 역할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G2G(정부 간 계약)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단위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중동 및 동남아 시장으로의 '소버린 AI' 기술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평가 등급: 문샷 (Moonshot)

판단 근거: 피지컬 AI(로봇 OS) 및 글로벌 확장성을 통한 파괴적 성장 잠재력은 확실하나, 상장 초기 수급 변동성이 극심하고 자산 가치 대비 주가(PBR 110배 이상)가 극도로 괴리되어 있어 일반적인 가치 투자의 범주를 넘어선 초고위험/초고수익 종목입니다.

핵심 재무 지표 및 투자 조언

핵심 재무 지표

- **실적:** 2024년 결산 기준 매출액 134억 원, 영업손실 23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2026년 매출 277억 원 및 영업이익 33억 원 달성을 통한 **첫 흑자 전환(Turnaround)**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판:** 상장 공모를 통해 확보한 약 3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부채비율을 30% 내외로 낮추어 단기적 재무 파산 리스크는 해소되었습니다.

투자 조언

현재 주가는 기술적 반등의 정점에 위치해 있으나, 공모가(19,500원) 대비 14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3월 중순으로 예정된 기관 의무보유확약 물량(전체 기관 물량의 52.75% 중 상당 부분) 해제에 따른 강력한 오버행(Overhang) 리스크를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40,000원 지지선 붕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격적 매수보다 관망을 권고합니다.

2. 기본 지표

3,774억

시가총액

2026.02.16 주가 47,000원 기준

48%

연평균 성장률(CAGR)

2024년 134.2억 원 대비 2027년 목표 436억 원

-17.7%

영업이익률 (OPM)

2024년 결산 기준 적자 상태

- **ROE:**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해 산출 의미가 미미하며, 자본 잠식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 **PER:** N/A (적자 지속으로 산출 불가)
- **PBR:** 약 159.0배 (2026.02.16 시가 기준). 이는 글로벌 AI 기업인 팔란티어(P/B 약 45배)와 비교해도 3.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시장의 극심한 과열 혹은 하이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 **부채비율:** 약 32.4%. 상장 전 300%대였으나 약 310억 원의 공모 자금 유입으로 재무 건전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3. 산업 구조 및 포지셔닝

시장 규모 (TAM) 및 성장성 분석

- **의료 AI 인프라 시장:** 글로벌 의료 AI 시장은 2026년 현재 연평균 성장률(CAGR) 35% 이상을 기록하며, 단순 진단 보조를 넘어 병원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하는 'AX(AI Experience)'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피지컬 AI(Robot OS) 시장:** 테슬라의 옵티머스, LG전자의 클로이 등 로봇 산업의 팽창으로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AI OS 시장의 총 유효시장(TAM)은 기존 의료 시장의 10배 이상인 수백조 원 단위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크릴의 유효시장(SAM):** 국내 대형 병원 인프라 고도화 및 우즈베키스탄, 중동 등 개발도상국의 국가 의료 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타겟팅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집니다.



밸류체인 내 위치 및 지배력

데이터 공급망의 상류

아크릴은 단순히 특정 질환을 찾아내는 AI 알고리즘 개발사를 넘어, 병원의 로우 데이터(Raw Data)를 AI 학습용으로 정제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나디아/조나단)**을 공급하는 '데이터 게이트키퍼' 위치에 있습니다.

독점적 데이터 파트너십

화상 전문 베스티안병원, 부산대병원 등 특정 도메인 병원들과의 전용 계약을 통해 경쟁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특화 질환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구조적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플랫폼 락인 전략

병원 정보시스템(HIS)의 심장부에 '조나단' 플랫폼이 이식될 경우, 향후 타사의 AI 모델이 병원에 도입되더라도 아크릴의 인프라를 거쳐야만 하는 '데이터 통행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경쟁 구조 및 글로벌 포지셔닝

국내외 경쟁 비교

루닛은 '암 진단', 뷰노는 '생체 신호'라는 개별 솔루션(App)에 집중하는 반면, 아크릴은 이 모든 AI를 구동하고 관리하는 **'인프라 OS'**를 지향합니다. 즉, 경쟁사들의 기술을 자사 플랫폼 위에 태울 수 있는 포괄적 포지션을 점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

국가 보안과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은 심어주되 데이터 주권은 현지에 보존하는" 맞춤형 전략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침투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4. 하방 안정성 상세 분석

재무적 안전판: 순현금 및 자산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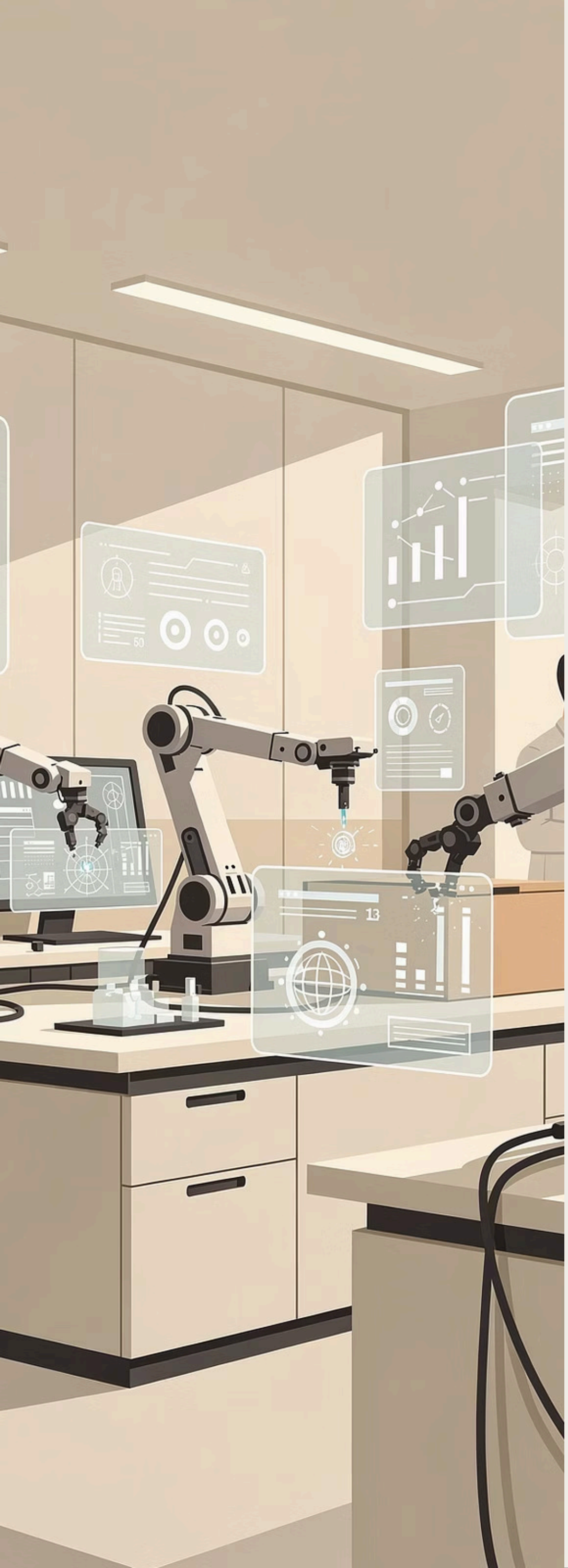
- **현금성 자산:** 2025년 상장 공모를 통해 유입된 약 310억 원의 현금은 현재 적자 구조에서도 향후 2~3년간의 R&D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부채 구조:** 상장 전 300%를 상회하던 부채비율이 32.4%로 급감하며 단기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 **청산 가치 한계:** PBR이 150배를 상회하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자산 가치에 기반한 '하방 지지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자산 가치(BPS)로 회귀할 경우 하락 폭은 90% 이상이 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구간입니다.

매출의 지속성 및 질적 분석

- **SI에서 SaaS로의 전환:** 과거 일회성 용역(SI)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조나단' 플랫폼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매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G2G 계약의 안정성:**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현금 흐름(Cash Flow)을 창출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 **대기업 파트너십:** LG전자와의 로봇 OS 협력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대기업 생태계 내에 편입됨으로써 사업 지속성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주가 지지선 및 바닥 확인

- **공모가(Floor):** 역사적 최저점인 공모가 19,500원은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나, 현재 주가(47,000원)와는 140% 이상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 **기술적 지지선:** 최근 거래량이 집중된 40,000원 선이 1차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가격대 붕괴 시 투매 물량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5. 해자 및 성장 동력

기술적 해자: '조나단(Jonathan)' 플랫폼의 수직 통합

- **MLOps 및 GPU 가상화:** 아크릴의 핵심 플랫폼 '조나단'은 AI 모델의 학습부터 배포, 운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MLOps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GPU 가상화 기술을 통해 인프라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가의 GPU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 및 기업들에게 강력한 도입 유인이 됩니다.
- **감성 컴퓨팅(Emotional AI)의 선점:** 10년 이상의 R&D를 통해 축적된 멀티모달(텍스트, 음성, 영상) 감성 인식 기술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AI를 넘어 인간과 교감하는 '공감형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도메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발 주자들이 단기간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구조적 해자 및 미래 성장 동력

구조적 해자: 데이터 정제 플랫폼 '나디아(Nadia)'와 병원 네트워크

비정형 데이터의 자산화: 의료 데이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나디아' 플랫폼은 데이터 확보의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습니다.

폐쇄적 데이터 루프(Loop): 화상 전문 베스티안병원, 부산대병원 등과의 전용 계약을 통해 확보한 특화 질환 데이터는 아크릴만의 독점적인 학습 자산이 됩니다. 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한 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타사 솔루션으로 교체하기 극히 어려운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피지컬 AI(Physical AI) 및 글로벌 확장성

LG전자와의 전략적 협업: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단행한 이유는 자사 로봇(클로이 등)에 아크릴의 감성 인식 및 판단 OS를 탑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크릴의 기술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로봇)의 '뇌' 역할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소버린 AI(Sovereign AI) 기반 G2G 모델: 국가 보안이 중요한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내에 독립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전략은 빅테크(구글, MS)의 클라우드 종속을 꺼리는 국가들에게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으며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퀀텀 점프 시나리오

01

매출 폭발 임계점 (Tipping Point): 피지컬 AI의 상용화

로봇 OS의 표준화: 현재 테스트 단계인 LG전자의 서비스 로봇(클로이 등) 라인업에 아크릴의 '조나단 5.0'이 표준 OS로 채택되어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할 경우, 하드웨어 판매량에 연동된 라이선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SaaS 매출 비중 역전: 구축형(On-premise) SI 매출 비중이 줄고, 클라우드 기반의 '나디아' 플랫폼 구독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상회하는 시점이 수익성이 폭발하는 퀀텀 점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02

TAM(총 유효시장) 확장성: 의료에서 로봇, 그리고 '소버린'으로

시장 경계의 붕괴: 아크릴은 의료 AI(헬스케어)라는 니치 마켓에서 시작했으나, 기술의 본질은 '멀티모달 감성 지능'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스마트 홈, 국방 로봇 등 모든 피지컬 AI 분야로 확장 가능하며, 이 경우 도달 가능한 시장 규모(TAM)는 현재 대비 100배 이상 확대됩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모델: 우즈베키스탄 모델을 패키징하여 카자흐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증하는 '제3지대' 국가들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출하는 '복제 성장' 시나리오가 유효합니다.

03

밸류에이션 리레이팅(Re-rating) 조건

흑자 전환(BEP) 달성: 2026년 가이드라인인 매출 277억 원, 영업이익 33억 원을 달성할 경우, '적자 성장주'에서 '수익형 성장주'로 체질이 개선되며 시장은 멀티플(Multiple)을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엔비디아(NVIDIA)나 AWS 같은 글로벌 인프라 기업과의 기술 파트너십 혹은 해외 로봇 제조사와의 신규 공급 계약 체결 시, 국내용 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피어(Peer)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7. 리스크 및 반론 (Bear Case)

치명적 약점: 3월 '오버행 (Overhang)'의 공포

- **기관 보호예수 해제:** 상장 후 3개월이 경과하는 2026년 3월 중순, 전체 기관 물량의 상당 부분(의무보유확약 52.75% 중 상당수)이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 **차익 실현 압력:** 현재 주가(47,000원)는 공모가(19,500원) 대비 약 140% 이상 상승한 상태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즉시 기관들의 강력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거품론 (공매도 시각)

- **지탱할 수 없는 멀티플:** 현재 PBR 150배 수준은 "미래의 모든 성공을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만약 2026년 흑자 전환이 단 한 분기라도 지연되거나 매출 성장세가 주춤할 경우,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에서 주가는 50% 이상 급락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 상태입니다.
- **현금 소진(Cash Burn) 속도:** 공모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과 R&D 투자로 인해 현금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CB(전환사채) 발행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될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사업적 불확실성 (Bear Case)

- **G2G 프로젝트의 정치적 변수:** 우즈베키스탄 등 개도국 대상의 정부 간 계약은 현지의 정치적 상황 변화나 예산 집행 지연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번번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입니다.
- **빅테크의 역습:** 엔비디아, 구글 등이 MLOps 시장에 직접 뛰어들거나 오픈소스 생태계가 아크릴의 '조나단' 수준의 편의성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할 경우, 아크릴의 플랫폼 해자는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및 수급 리스크

- **테마주 편입에 따른 변동성:** 현재 '로봇 OS' 및 '감성 AI' 테마에 묶여 펀더멘털과 무관한 수급에 의해 주가가 등락하고 있습니다. 테마의 열기가 식을 경우 실적과 무관하게 수급 공백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모니터링 요소

Up-side Trigger: 주가 상승의 촉매제

- **LG전자 로봇 정식 채택 공시:** 현재 테스트 중인 LG전자의 특정 로봇 라인업(예: 클로이 가이드봇 등)에 아크릴의 OS가 '기본 탑재(Default)'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올 경우, 이는 실질적인 대량 매출의 신호탄이 됩니다.
- **중동/중앙아시아 JV(합작법인) 설립:**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과 현지 JV 설립 소식이 전해질 경우, '소버린 AI' 수출 모델의 실효성이 입증되며 멀티플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28.9억 원 규모 유니와이드향 수주 후속:** 최근 체결된 인프라 구축 계약 외에 추가적인 대규모 서버/플랫폼 공급 계약이 연이어 공시될 경우, 2026년 흑자 전환 가이드라인의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Down-side Red Flag: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위험 신호

- **40,000원 지지선 붕괴:** 수급상 핵심 지지선인 40,000원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며 하향 돌파될 경우, 기술적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공모가 부근까지 급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 **3월 보호예수 해제 당일 거래량 폭증:** 3월 중순 기관 물량 해제일 전후로 평소 거래량의 5~10배가 넘는 매도 물량이 출현하며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는 기관의 '엑시트(Exit)' 시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실적 발표 시 영업손실 확대:** 만약 2025년 결산 및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 성장세가 꺾이거나 영업손실 폭이 가이드라인 대비 확대될 경우,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9. 스카우터 Note

> **최종 평가: "기술의 정점에 선 문샷(Moonshot), 그러나 안전마진은 부재"**
>
> 아크릴은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Physical AI)과 국가 인프라(Sovereign AI)로 확장되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R&D로 축적된 '감성 컴퓨팅' 기술과 LG전자라는 강력한 파트너십은 이 기업이 단순히 꿈을 파는 회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
> 그러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재의 주가는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PBR 150배를 상회하는 밸류에이션은 '성공'뿐만 아니라 '완벽한 실행'까지 가격에 반영한 수치입니다. 가치 투자자의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인 '하방 지지선(Margin of Safety)'이 재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결함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전문가적 제언

공격적 투자자: 2026년 흑자 전환과 피지컬 AI 시장의 개화를 믿는다면, 현재의 변동성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월 중순 예정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시장에 소화되는 과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비중을 조절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수적 투자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을 떠올린다면, 지금은 이미 머리끝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인 실적(영업이익)이 숫자로 찍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주가가 수급 충격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하는 구간(PBR 20~30배 수준 혹은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최종 요약: 아크릴은 **'위대한 기술'**을 가졌으나, 현재 시장은 **'위험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월의 수급 폭풍(오버행)을 견뎌내고 40,000원 선을 수성한다면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10. 리포트 참고 자료

본 보고서의 데이터 검증 및 시장 분석을 위해 참조된 주요 자료 리스트입니다. 각 링크는 공식 기관 및 신뢰도 높은 데이터 플랫폼의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FACT] 공시 및 재무 데이터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아크릴(0007C0) 정기공시: dart.fss.or.kr
- 아크릴(Acryl) 공식 홈페이지 IR 센터: acryl.ai/ir
- 한국거래소(KRX) KIND 상장법인 상세정보: kind.krx.co.kr
- 세이브로(Seibro) 기업별 의무보유확약 해제 일정: seibro.or.kr
- LG전자 IR 지배구조 및 투자 현황: lgcorp.com/ir/governance
- 유니와이드(Uniwide)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uniwide.co.kr/disclosure

시장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 네이버 페이 증권 - 아크릴 종목 상세: finance.naver.com/item/main.naver?code=0007C0
- 컴퍼니가이드(Company Guide) 재무제표 분석: comp.fnguide.com
- 인베스팅닷컴 글로벌 AI 섹터 실시간 주가: investing.com/equities/ai-sector
- DeepSearch(딥서치) 기업 가치 및 특허 데이터: deepsearch.com
- FnGuide(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 데이터: fnguide.com
- Big Kinds(빅카인즈) 뉴스 데이터 분석: bigkinds.or.kr

산업 및 기술 리포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MLOps 기술 리포트: itfind.or.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 khidi.or.kr/ep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즈베키스탄 경제 협력 분석: kiep.or.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동 소버린 AI 수요 분석: kiep.or.kr
-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서비스 로봇 시장 통계: kiria.org
- Gartner(가트너) Cloud AI 서비스 매직 쿼드런트: gartner.com
- NVIDIA Developer Blog - GPU Virtualization: developer.nvidia.com/blog

협력 기관 및 사례

- 베스티안병원 AI 헬스케어 협력 관련 공식 보도: bestian.kr/news
- 부산대학교병원 데이터 정제 플랫폼 도입 사례: pnuh.or.kr/research

11. 추가 조사 가이드

본 보고서는 제공된 데이터와 현재 시장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투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각지대(Blind Spot)' 조사 항목들을 제안합니다.

1. 기술 실증 및 경제성 검증

GPU 가상화 효율성 측정: 아크릴의 '조나단' 플랫폼이 실제 현장에서 엔비디아(NVIDIA) 대비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TCO) 효과를 주는지 현업 개발자나 IT 인프라 매니저의 피드백을 수집해야 합니다. [추정]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 속도: 의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정제할 때 발생하는 레이턴시(Latency)와 정확도가 의료진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확인]

2. 파트너십의 실효성 및 깊이

LG전자와의 협업 디테일: 단순히 지분 투자 관계를 넘어, LG전자의 로봇 개발 로드맵에서 아크릴의 OS가 '대체 불가능한 핵심 모듈'인지, 아니면 '여러 옵션 중 하나'인지 IR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

베스티안병원 외 확장성: 특정 병원과의 독점 계약이 타 대학병원으로의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플랫폼의 범용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추정]

3. 글로벌 정치·경제 리스크

중앙아시아 G2G 예산 집행 현황: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현지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 리스크는 없는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의견]

중동 소버린 AI 수요의 실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나 UAE의 AI 전략 내에서 아크릴과 같은 중소 플랫폼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션(Portion)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추정]

4. 수급 및 엑시트(Exit) 전략

기관 의무보유확약 해제 후 잔여 물량: 3월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기관들이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지, 아니면 장기 보유를 선택하는지를 통해 '스마트 머니'의 시각을 읽어야 합니다. [FACT]

CB/BW 등 잠재적 희석 물량: 현재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미행사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 물량이 향후 주주 가치를 얼마나 희석할지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FACT]